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

맛을 아는 사람과의 국악 데이트

▶ 국립민속국악원 '다담' 22일 올 첫 공연

전통음식문화를 탐구하는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초대

음식의 '맛' · 음악의 '멋' 살피며 국악 이해하는 시간 가져

국립민속국악원은 차와 이야기가 있는 오전의 국악콘서트 다담의 올해 첫 공연을 연다. 오는 22일 오전 11시 국악원 예음헌에서 열리는 다담에는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사단법인 끼니 대표)을 이야기손님으로 초대해 음식의 맛과 음악의 멋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는 우리 전통적인 음식 문화와 맛의 본질 등에 대해 탐구하며 <서울을 먹다> <한국음식문화백과사전> <미각의 제국> <소문난 옛날 맛집> 등의 저서와 강의 및 방송을 통해 우리의 음식문화 비평을 전개해 왔다. 이날 공연에서는 인류의 의사소통 방법으로써

음식의 맛과 음악의 멋의 대해 살피며, 우리 음악에 대한 색다른 이해의 시간을 갖는다. 황교익 대표의 이야기와 함께 무대를 장식하는 음악은 관소리와와 만남을 시도하고 있는 에스닉 퓨전 밴드 '두 번째 달'과 젊은 소리꾼 '김준수'가 담당한다. 남도민요와 남원을 대표하는 관소리 춘향가의 여러 대목들을 들려줄 예정이다. 두 번째 달은 세계 각국의 민속 음악을 친근한 방식으로 재해석하여 연주하는 밴드이다. 2005년 데뷔 당시 최고 인기 드라마 궁 OST에 참여했고 다수의 CF음악작업으로 예술성과 대중성을 인정 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두 번째 달 국악프로젝트: 관소리 춘향가' 음반을 발표해 한국 전통음악과 세계 민속음악과의 영역을 넘나들고 있다. 소리꾼 김준수(국립창극단원)는 최근 M.net '너의 목소리가 보여'에 출연해 국악계를 넘어 폭넓은 사랑을 받았다. 공연사회는 국립민속국악원 단원이자 국악방송 '온고를 상사디야'의 진행자로 활동하고 있는 방수미가 맡는다. 공연은 전석 무료이며, 예약은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namwon.gugak.go.kr)에서 하면된다. /정해은 기자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영화 공모 마감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는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영화 프로그램' 공모에 총 919편의 작품이 출품됐다고 밝혔다.



부문별 편수는 '한국경쟁'에 128편, '한국단편경쟁'에 748편이다. 이와 함께 올해 처음으로 별도 공모를 진행한 전주·전북 지역영화에는 43편이 응모했다. 올해 영화제의 특이점은 지역 영화 공모를 처음 시행하여 지역 영화의 발굴 및 지원한다. '지역영화' 공모를 통해 출품한 43편의 작품 중 장편에는 6편, 단편에는 37편이 출품됐다. 그 중 40편은 극영화, 3편은 다큐멘터리 장르이다. 공모 결과, 출품 조건 3가지 중 전북 지역에 주주지를 둔 작품과 50% 이상 전북에서 로케이션 등 2가지 항목에 중복 지원한 사람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전주국제영화제 사무처는 "장·단편을 막론하고 많은 작품이 응모한 만큼 양질의 작품이 선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본선작 선정 작업과 더불어 영화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영화 부문에서 상영할 본선 진출작은 예심을 거쳐 오는 3월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본선작은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열리는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쟁'과 '한국단편경쟁' 주요 상을 두고 경쟁한다. /정해은 기자

군산 둔율동 성당, 문화재 등록 예고

군산시 둔율동에 소재한 '둔율동 성당'이 지난 1월 24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로 등록 예고됐다. 둔율동 성당은 군산에서 최초로 건립된 천주교 본당 건물로 건립 당시 기록을 잘 정리한 '성전건축기'가 잘 보존되어 있다. 또 설계자가 분명한 당시 건축설계 도면이 함께 남아 있어 1950년대 지역의 건축설계와 공사 등을 파악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특히 성당 신축과 관련하여 성도들의 헌물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사례가 건설지 등에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문 사례로 알려졌다. 문화재청은 군산 둔율동 성당에 대하여 지난 15일부터 내달 16일까지 30일간 등록 예고 기간 중에 수렴된 이해관계자와 각계의 의견을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문화재로 등록할 예정이다. /군산=문정곤 기자



▶▶ 공연 & 전시 ◀◀



삶을 담은 미술언어

군산근대역사박물관, 하반기 화백 작품전

군산근대역사박물관(관장 문세환)이 故하반영 화백의 '삶을 담은 미술언어' 작품전을 오는 5월 14일까지 개최한다. 하반영 화백(1918~2015)은 7세 때 수묵화를 그리며 천부적인 재능을 인정받았으며, 가장 한국적이고 민족적인 작품으로 동서양의 융합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화백은 개인전 50회, 해외 초대전 10회, 국제전 150여 회를 치르며 '동양의 피카소'로 불렸다. 이번 작품전에서는 스타스키 꽃이 있는 정물, 붉, 밝아온다, 생명의 샘, 힘, 마하, 어머니의 장생, 복숭아 등 하 화백의 대표작 30여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하반영 화백의 과감한 장르 탈피와 해체를 보여주는 정물화, 풍경화, 추상화들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그의 뛰어난 예술성을 보여주는 사실주의 화풍과 장르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감상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하반영 화백의 다양한 작품을 통해 관람객은 물론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로 기획됐다"며 "지역의 자랑스러운 작가 하반영 화백의 예술세계와 혼, 그리고 삶의 자취를 다시금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전시가 열리는 장미갤러리는 복원된 근대건축물로, 지난 2013년 6월부터 1층은 하 화백의 자료실로 화구 전시와 영상을 상영하고 있으며 2층은 하 화백의 상설전시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군산=문정곤 기자

화제작 '너의 이름은' ... 신카이 마코토의 모든 것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2월 '주말의 명화' ... '초속 5센티미터' · '언어의 정원' 등 선보여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전주영화제작소 4층)은 관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 중 최근에 재개봉되거나 국내에서 처음 개봉하는 고전명작을 선정해 주말에만 상영하는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2월 '주말의 명화'에는 영화 '너의 이름은'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전작이 재조명된다. 감독의 극사실주의 작화가 강조된 '초속 5센티미터'는 빗꽃이 떨어지는 속도에서 착안해 이련한 로맨스를 그린 세 편의 애니메이션이다. 빗꽃이 흩날리고 빗방울이 떨어지는 서정적 풍경을 담아내며 신카이 마코토 이름을 본격적으로 국내에 알리게 된

작품이다. 영화는 작품성을 인정받아 제1회 아시아 태평양 스크린 어워드 최우수 애니메이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 감독의 인지도를 각인시킨 '언어의 정원'은 고교생 다카오와 의문의 여인 유키노의 이야기로 여름철 녹음을 감독 특유의 섬세함으로 담아낸다. 제17회 판타지아 영화제 베스트 애니메이션 영화상을 수상했다. /정해은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따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7년 2월 17일>

<p>▷쥐띠 48년생: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만 않는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운이다. 60년생: 이성을 대할 때에는 조심해야 하는 운. 72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시비를 거는 사람이 생기는 운. 84년생: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p>	<p>▷소띠 49년생: 건강에 주의해야 하는 운. 61년생: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질 수 있는 운이다. 과하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73년생: 손아랫사람에게 배플면 후에 큰 이득이 되어 돌아온다. 85년생: 상대방에 의견이 맞지 않는다.</p>	<p>▷호랑이띠 50년생: 생각하지 못했던 실수를 범할 수 있다. 62년생: 동료나 가까운 사람과 구설로 인해 고민할 일이 생기니 불필요한 말을 삼가라. 74년생: 손재수가 따르는 운이니 투기는 삼가라. 86년생: 문서작성, 문서를 주고받는 일에 좋은 날이다.</p>	<p>▷토끼띠 51년생: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는 받으나 결과는 좋으니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 63년생: 타인을 도와주면 공이 돌아온다. 75년생: 동기감으로 인해 성가신 일이 발생한다. 87년생: 일이 생길 때 다른 사람에게 의지 하지 말고 해결하라.</p>
<p>▷용띠 52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좋은 결실을 맺는 운이다. 64년생: 자신보다 약한 사람과 함께 일을 진행해야 할 때, 루는 사람은 기회를 놓칠 것이다. 76년생: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좋은 결실이 따를 것이며, 미루는 사람은 기회를 놓칠 것이다. 88년생: 지금은 결실을 맺으려고 할 때가 아닌 준비하는 때.</p>	<p>▷뱀띠 53년생: 외부적으로는 좋은 일이 생기나 내부적으로는 다툼이 일어나니 주의하라. 65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화합이 필요하다. 77년생: 원하는 것이 있다면 뒷사람과 함께 움직여라. 쉽게 얻을 수 있다. 89년생: 항상 잘 되고 있을 때 겸손함과 조심을 잊지 않아야 하는 법.</p>	<p>▷말띠 54년생: 먼저 베풀면 후에 얻게 될 것이다. 대신 대가를 바라는 선행은 의미가 없음을 잊지 마라. 66년생: 움직이면 좋은 일이 생긴다. 78년생: 윤행할 일이 있으면 선행에 주의하라. 90년생: 침체 되어있던 운은 지나가고 활기찬 운이 도래했다.</p>	<p>▷양띠 55년생: 동기감과 함께 하면 기쁜 일이 생기고 웃을 일이 많아지는 좋은 운이다. 67년생: 큰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해가 되는 일은 없었다. 79년생: 이성을 조심해야 하는 운. 91년생: 건강에 주의하라.</p>
<p>▷원숭이띠 56년생: 이성과 함께 진행하라. 좋은 결과가 따른다. 68년생: 잠재되어 있는 운이 표출되려면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80년생: 하고자 하는 일이 어긋나면 때로는 잠시 쉬었다가 움직여라. 92년생: 정신적, 체력적으로 소모는 많으나 결실은 적다.</p>	<p>▷닭띠 57년생: 마음이 심란하고 정신이 맑지 않다. 69년생: 배신감을 느낄 만한 상황이 발생한다. 81년생: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준다고 해도 상대방에게 원망을 들을 소지가 있으니 말을 삼가는 것이 상책이다. 93년생: 하고자 하는 일이 수월하게 풀리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운.</p>	<p>▷개띠 46년생: 적은 문서를 잡거나 움직이는 것은 무방하나 큰 것을 움직이면 해가 따르니 주의하라. 58년생: 오히려 재물운은 좋다. 70년생: 정신이 맑지 않으니 실수를 하거나 판단 오류를 범하게 된다. 82년생: 안에서 활동하기 보다는 밖으로 나가야 좋은 운.</p>	<p>▷돼지띠 47년생: 뒷사람으로 인해 근심 걱정 할 일이 생긴다. 59년생: 건강에 주의가 필요한 운이다. 71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은 운이다. 해답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으니 마음을 다스려라. 83년생: 손아랫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라.</p>